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7년 3월 22일 · 제 399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김은수 실장,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머스크의 '회전돌' 정착 테스트, 해운시장 변혁 예상
2. DHL, 홍콩의 신규 서비스센터를 이용한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확대
3. 인텔 Mobileye 인수로 자율주행차 시장 진출
4. OOL, 2016년 2억1,900만 달러 손실 기록

| 물류시장동향 |

1. 장삼각(Yangtze River Delta Urban Agglomerations) 올해 철도 건설 다시 활기 찾아
2. 베트남, 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 수립

| 공지사항 |

1. 2017년 민관합동 물류자원센터 사업





물류정책 · 사업동향

머스크의 '회전돛' 장착 테스트, 해운시장 변혁 예상

- 머스크탱커는 핀란드 회사인 Norsepower를 통해 30미터의 회전하는 원통형 돛을 자사선 1척에 설치하여 테스트할 계획임
 - 머스크탱커는 109,647dwt LR2 제품선에 높이 30m, 지름 5m의 Norsepower Rotor Sail 2개를 장착할 예정임
 - Norsepower는 선박을 추진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Flettner rotor¹⁾ 모델을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임
 - Norsepower는 회전돛이 선박의 연료 소비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11만톤급 유조선의 경우 배출가스를 약 10% 줄여줄 것으로 예상함
 - 이번 프로젝트는 제품선에 풍력 에너지 기술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이며, 연료 및 운영비 절감에 대한 새로운 접근임
 - 회전돛은 2018년 상반기 중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후 2019년 말까지 해상에서 테스트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Energy Technologies Institute(ETI)가 투자하고 머스크탱커와 Norsepower는 출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Shell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머스크탱커는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상의 경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자료 : www.porttechnology.com

자료 : www.porttechnology.com, 2017.3.16.

박성화 전문연구원
051-797-4614, shpark83@kmi.re.kr

1) 선박을 추진하기 위해 풍력을 포집하는 회전 실린더



DHL, 홍콩의 신규 서비스센터를 이용한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확대

- DHL은 국제 전자상거래 수송 증가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 DHL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소매업체가 제품을 주요 지역에 공급하여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콩에 새로운 서비스 센터를 개설함
- 중국 DHL 전자상거래 전무이사 Zhi Zheng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억 명의 온라인 구매자가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 서비스 이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 2020년 국제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의 온라인 구매자의 약 40%가 해외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고객 간의 효율적인 연결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 DHL 홍콩 센터는 주로 해외 온라인 소매업체에게 인바운드 화물, 재고 수준 및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통합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배송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임
 - DHL 익스프레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자사 제품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평균 10~15%의 매출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DHL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에게 관세 및 규제 규정이 국경 간 원활한 통관 절차의 진행 과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언급
 - 그러나, 홍콩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물을 완화할 수 있으며, 유연한 보관 시스템, 최종 소비자와의 근접성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업체가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DHL 전자상거래 아시아-태평양 지부 CEO인 Malcolm Monteiro는 전자상거래의 미래 성장은 국경 간 거래에 달려있으며,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는 효율적인 물류 및 이행이 그 핵심이라고 언급함
- 홍콩 서비스센터는 이상적인 주문처리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기능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웹샵 플랫폼에 이르는 front-end 통합, 다중 채널 주문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을 위한 라스트 마일 솔루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전체 프로세스에서 비용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이 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자본지출 및 고정비용 없이 PPU(Pay-per-Use) 모델로 작동함

자료 : www.joc.com, 2017.3.13.

이기열 전문연구원
051-797-4670, kylee@kmi.re.kr



인텔, Mobileye 인수로 자율주행차 시장 진출

- CPU 제조사인 인텔은 자율주행차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자율주행 차량 기술회사인 Mobileye를 15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향후 9개월 안에 인수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이번 인수로 인텔은 자동차 시스템과 데이터 및 서비스 시장까지 진출하게 됨
 - 자동차 전장장치 시장은 2030년까지 연간 7,0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Mobileye는 위치측정 및 지도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화 운전 기술에 특화한 기업임
 - 컴퓨터 비전²⁾, 기계 학습, 자료 분석 등도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 회사에서 660여명의 직원이 개발한 시스템은 세계적인 차제조사들의 모델에 이미 적용되었거나 곧 적용을 할 예정임
 - 이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차량부품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Mobileye는 BMW, 폴스바겐, 델파이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음
- 인텔은 Mobileye 인수를 통해 기존의 컴퓨터 시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부문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가진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 지도화, 가상운전, 모의훈련장치(simulator), 개발도구 망,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최첨단 컴퓨터 플랫폼 등의 부문에서 새로운 노하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음
 - 인텔의 최첨단 컴퓨터 및 연결성 기술을 Mobileye의 최첨단 컴퓨터 비전 기술과 결합하면 자동차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진보한 완전 자율운전의 원천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인텔의 목표는 모든 기술과 산업에서 데이터 혁명을 이끌어 내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텔의 CEO가 밝힘
 - Mobileye를 인수하게 되면서 차량을 통해 주변을 볼 수 있는 시각체계를 인텔의 컴퓨터 기술과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함
- 인텔은 이번 인수로 Intel Go 기술의 기초가 될 완전 자율주행차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임
 - Intel Go 기술은 고성능 차량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5G 기반 연결성, 탄탄한 데이터 센터 플랫폼,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인텔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0여대에 이르며, 인텔은 올해 하반기에 BMW와 제휴관계를 맺고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을 총 40대 추가할 계획이라고 함
- 인텔은 2020년까지 각각의 자율주행 차량이 매일 4,000 기가바이트의 정보를 생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2) 인간의 시신경 체계의 역할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게 디지털 이미지 및 영상물 처리기술을 연구하는 분야



- 이는 중앙연산처리장치, 메모리, 광대역 통신망, 컴퓨터 비전 기술에서 대규모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자동차 전장장치부문에 대한 기술력 확보 및 시설투자가 필요할 것임



자료 : automotivelogistics.media

자료 : automotivelogistics.media, 2017.3.14.

박창근 전문연구원
051-797-4781, beinji2@kmi.re.kr



OOIL, 2016년 2억1,900만 달러 손실기록

- Orient Overseas Container Line(OOCL)의 모회사인 Orient Overseas International Ltd(OOIL)은 2016년 2억1,9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함
 - OOIL Group은 전 세계 70개국에 320개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음
 - OOIL은 OOCL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에서 가장 큰 국제 운송회사를 운영중
 - 2015년은 2억8,4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함
- OOCL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2015년 59억5,000만 달러에서 2016년 53억 달러로 감소함
 - OOCL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5년 560만 TEU에서 2016년 610만 TEU로 약 10% 증가함
- OOIL 회장 C. C. Tung은 “지난해 해운업계는 저조한 시장 성장과 최근 수년간 축적된 초과 공급량으로 인해 가장 어려운 해였다.”고 밝힘
 - 작년 하반기의 연료비 상승과 2009년보다 하락한 운임이 실적악화의 주요요인으로 분석됨
 - OOIL의 2016년 영업손실 중 약 74%가 하반기에 발생함
- OOCL은 올해 4월 COSCO, CMA-CGM, Evergreen과 Ocean Alliance의 회원사가 됨
 - C. C. Tung은 “대형 선사들과 파트너협력을 하게 되어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OOCL은 Ocean Alliance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속적인 비용 개선에 중점을 두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IT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7.3.13. / www.ooilgroup.com, 2017.3.13.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물류시장동향

장삼각(Yangtze River Delta Urban Agglomerations) 올해 철도 건설 다시 활기 찾아

- 장삼각³⁾지역, 올해 총 약 2,262억 위안 투자 12개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착공할 예정
 - 상하이철도국은 올해 옌통(yantong), 후통(hutong)2기, 안구(anjiu), 창통황(changjinghuang), 황지(huangdi), 퉁금(tongjin), 항샤오타이(hangshaotai), 장교(zhuangqiao)~닝보(ningbo) 3·4호선 증축 등 12개 프로젝트에 총 약 2,262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 건설되는 프로젝트 중 최대 관심사였던 상하이~쑤저우~후저우 구간은 418억 위안을 투자하여 전장 164km, 시속 350km의 고속철을 투입할 예정이며, 철로가 완성되면 상하이 홍차오역에서 출발하여 쑤저우 우장을 경유하여 후저우까지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밝힘

자료 : www.chineseport.cn, 2017.3.17.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베트남, 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 수립

- 베트남 정부는 무역 촉진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물류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발표
 - 2025년 까지 물류부문을 GDP의 8~10% 까지 향상시키고, 현재 15~20%에 머물고 있는 3PL의 비중을 50~60% 까지 향상시키겠다고 발표
 - 또한 현재 GDP 대비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가물류비를 GDP 대비 16~20% 까지 감소한다는 목표를 추진
-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추진 중
 - 하지만 규모가 작고 협소한 베트남 물류기업의 형태와 철도, 도로, 항만 등 낙후된 물류인프라는 여전히 베트남 물류시장의 취약점으로 지적
 - 또한 베트남 물류시장 내 인력공급, 뒤쳐진 법이나 정책 또한 선결과제 중의 하나

자료 : www.english.vietnamnet.vn, 2017.3.16.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3) 장삼각: 쑤저우, 절강, 상하이 인접지역의 17개 성으로 구성.
상하이, 장쑤성의 8개 시(난징, 쑤저우, 양저우, 전장, 타이저우, 우시, 창저우) 및 절강성 7개 시(항저우, 닝보, 후저우, 자쑹, 저우산, 사오쑹, 타이저우)



2017년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공 고 문

대한상공회의소는 화주·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물류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2017년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2.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 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 공동물류 지원사업
 - 공동물류 축진을 위해 화주 또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3. 참가자격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제3자물류 컨설팅 및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 물류기업 참여가능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별첨 사업안내서 참조
- 제출기간 : 2017. 3. 6(월) ~ 4. 7(금), 18: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단, 우편 제출시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조사팀)

5.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절차

신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기준 : 별첨 사업안내서 참조

6.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문의사항]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김대규 차장
(T. 02-6050-1443, E-mail : 07807@korcham.net)